



제17회 일본산업의과대학 산업간호 국제심포지움을 다녀와서(Ⅱ)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간호사
변 성 원

일본에서 국제학술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선뜻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것저것 걸림돌이 많아 망설임에 망설임을 거듭하던중 '모든 것을 접어두고 좀더 넓은 세계를 보자' 라는 결정을 내렸을때 이미 학술대

회 기간이 너무나 압박해 있었다.

학술대회가 열릴 장소는 일본의 서남단 섬의 키타 규슈에 위치한 University of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내 Ramazzini Hall 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도시의 모습은 높은 건물보다는 크고 작은 굴퓍이 즐비한것이 우리나라의 공업도시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

제주도 날씨보다는 따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갔지만,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더위에 가져간 가죽옷이 무색해졌다.

1997년 10월19일 저녁, Opening Party에 참석하기 위해 Ramazzini- Hall을 찾았을때 행사준비로 분주해 보였다. 등록을 마치고(뒤늦은 추가 신청으로 참가비 5000엔을 더 추가해야만 했다. 다른 회원님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외화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먼저 도착한 우리 일행은 Opening Party 장소로 이동했다.

그래도 참석자의 명단을 확인해보니 주체국인 일본을 빼고는 지리적인 여건상인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참석한 간호사의 수가 많은 편이었다. 각국의

참석자들과 body language(?)로 함께 담소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느낀 인상적이었던 점은 일본의 간호학생들의 모습이였다.

각국의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권하기도 하고, 궁금한점을 질문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미국에 어학연수도 다녀왔다함) 우리 간호학생들도 이런기회를 접했을 때 자신있게 외국인을 대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Ramazzini Hall 앞의 Ramazzini 동상이었다. 의대엔 보통 Hippocrates 동상이 있다라는 관념을 깨고 근대산업 의학의 선구자인 Ramazzini동상이 있는 것을 보면서University of Envior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의 Image에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다.

1997년 10월20일 Welcoming Message by Dr. Akira Koizumi, President 로 시작하여 각국의 참가자들의 각 Session별 발표가 쉼새없이 진행되었다.

-10월20일

· Session 1: Partnership in Occupational Health

-10월21일

· Session 2: Education and training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 Session3: Intervention/behavior to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10월22일

· Session 4: How to integrate computing into occupational health nursing

· Session 5: Cost/benefit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각 Session별로 Keynote Lecture후 짧막하게 Oral Presentations이 계속되었다.

본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산업보건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이 있었다.

일본의 산업보건에 대한 소식은 이미 지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기도 했지만 직접 방문을 하여 생생하게 접할수 있음에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아무튼 근시안적인 산업보건의 시야를 좀더 넓히자 라는 생각이 간절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보건의 실시는 the Primary Health Care의 원리와 the WHO Health For All Strategy의 가치에 의해 고취되어지며 조직된 산업보건 실행, 건강보호 재구성, 직업의 복귀 촉진 정책들과 직업능력 유지의 틀 안에서 산업간호의 공헌이 정의되어 진다고 본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건전한 작업환경과 안전(건전한 작업장)과 그리고 산업보건보호(건강한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자의 건강증진,보호 예방 등의 상호작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NIOSH는 상해 및 작업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연방보건연구대리기관이다.

1996년에 산업안전을 지도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the Agenda를 발전시켰다. 산업간호사들은 the Agenda를 창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조직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1970년 산업보건과안전법령이 진행되면서 Educational Resource Centers(ERCs)라는 전문훈련교육과정이 생겼다.

산업보건과학, 간호과학, 특수화된 산업간호과정 작업이라고 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산업간호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고용주 대부분은 질병부재(병가), 복직, 근로자 보상 그리고 산업보건 치료의 서비스를 위해 충분히 지불을 했다고 생각하며, 고용주와 고용인의 이 비용의 감소는 큰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 환경과 산업보건의 관점에서 이 가치는 첫째, 불건강과 질병으로 인한 부재의 방지로 인한 회사 비용 효과

둘째, 사회에 있어서 비용 이익 셋째, 산업보건 단위 자체의 비용 효과등 세가지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일본의 산업보건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산업재해나 질병의 수준에서 2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산업간호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보건관리대행 제도는 거의 일본과 유사했다.(50인 이하 국고 보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국제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간호사들도 대처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현실이 IMF시대에 사회,경제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 생산성의 극대화가 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산업보건분야가 축소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는 국제 산업간호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일본 산업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및 한국 참석자들과 함께